



계성산우회보

제 39 호

- 발 행 인 : 김시우
- 편집국장 : 정인재
- 등반대장 : 류청웅
- 편집위원 : 김진걸
- 총 무 : 신대수

2007년 3월 23일(금)

교훈: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1

발행처:계성산우회보사 • 대구광역시 중구 대신동 259-5 계성빌딩 811호 • 전화:(053)255-3900 FAX(053)256-4942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isung.or.kr

4월 정기산행

경남 통영시, 사랑도 칠현산(349m)에서

사랑도는 윗섬과 아랫섬을 본섬으로 하고 수우도 능가도 대섬 등 작은 섬 몇 개를 부속도서로 거느리고 있다. 이 섬은 행정구역상 경남 통영시에 속해 있지만 지리적으로 고성군과 사천시(삼천포) 앞바다에 떠 있다.

한려수도 풍광을 벗삼아 암릉따라 오르락 내리락 쉽없이 이어지는 일곱개 암봉으로 윗섬 지리산 그늘에 가렸지만 환상적인 눈요기로 허기를 채워 매끈다. 멀리서 보는 윗섬의 옥녀봉, 그 위용은 가히 짐작하리라.

또한 위엄있는 암봉이 해발 349m에 불과하다면 어느 누가 믿겠는가. 한려수도의 환상적인 풍광을 내려다보면서 암릉을 오르내리는 칠현산은 산행의 색다른 묘미를 안겨준다. 주봉인 칠현봉은 왼쪽에서 세번째. 늘상 오르내리는 육지의 산보다는 한번쯤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색다른 산행의 묘미를 느껴보자는 뜻에서다.

총 산행거리는 4.4Km 산행 시간이 비교적 짧고 그리 힘들지 않는 마냥 즐거운 코스다.

30여분을 올라 능선에 오르면 탁트인 경관이 탄성을 자아낸다. 저 건너 윗섬의 지리산 불모산 옥녀봉 능선이 한 일자로 뻗어 있고 발아래는 방금 지나온 해안 일주도로가 시야에 들어온다.

호수같이 잔잔한 바다 위에는 통영과 섬 사이를 오가는 여객선과 조그만 고깃배들이 하얀 포말을 내며 지나가 한동안 시선을 빼앗는다.

좌우 한려수도가 보이는 가운데 능선길을 걷는다. 한 걸음 한걸음 옮길 때마다 이토록 아름다운 능선길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50여분. 암릉을 힘겹게 타고 오르면 또 다른 봉우리. 선착장이 있는 덕동마을이 훤히 보인다.

칠현산 암릉은 멀리서 보면 그 모습이 성을 쌓은 듯해 산성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다가가 보면 평화상태 그대로다. 하여 암릉과 소나무 숲길을 오르락 내리락, 그 단새 만대이 검은 정상석이 버티고, 한숨 돌리고 점심, 아, 참! 식수는 꼭 챙겨야할 필수 준비물, 하산 길도 좌우 전망이 워낙 좋다보니 뒤게 쉽게 내려온대이.

사랑페리호 즉 다리호 쇄배를 타면 승선명부가 있어야



▲ 사랑도 칠현산 전경

되니 동문들 동기 총무들 수고 털게 자진하여 참석 여부 전화 한통 부탁드립니다. 인원수 정확하게 일요일이라, 각지에서 몰려 어렵게 예약했는 관계로 잘 해주리라 믿고..., 하산 주는 거나하게!!!!

산행코스는 다음과 같다.

덕동항-봉화대-칠현봉-마당바위-용두봉-읍포마을-덕동(총소요시간:약3시간반)

글 · 류청웅(48회)

<2007년분 기별 산우회비 납부안내>

산우회비는 각 기수별로 연간 10만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비는 산우회보 인쇄, 발송 및 산우회의 각종 행사시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아직 납부치 않았신 기수는 빠른 시일 내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금계좌 : 대구은행 247-07-000915-8 (예금주 : 신대수)

<제87차 정기산행 안내>

▶일 시 : 2007년 4월 1일(日) 07:00 (시간 지켜 주세요.)

▶장 소 : 모교 정문 ▶회 비 : 2만1천원 (땀샷 왕복 6천원 포함)

▶준비물 : 도시락, 식수, 간식류 외(각 기에서는 하산 주 꼭 준비)

▶문 의 : 신대수(70회) H.P : 011-251-9613



HOTEL AIRPORT

호텔에어포트

http://www.htlair.com

- 넓은 주차장, 품격있는 결혼식, 돌잔치, 회갑연, 기타행사
- 웨딩, 연회 예약문의 : 053)260-0306~7

대표 서 은 수 (55회)

대구광역시 동구 지저동 400-1(대구국제공항 내) / TEL : (053) 260-0001

회 원 탐 방

편안한 만남

명지건설(주) 대표이사 서희동 동문

꽃샘 추위가 봄이 움을 시샘 하듯 마지막 추위가 웃기를 여 미게 하는 지난 3월 8일 이번달 탐방인사로 약속된 동구 방촌동에 위치한 명지건설(주) 대표인 서희동(68회) 동문의 회사를 찾았다.

평소 선후배 사이로 각별한 관계에 있는 오상달(65회) 산우회장의 추천이 있었기에 오상달 동문과 마침 오 동문의 회사를 방문했던 김종태(65회 부회장) 동문이 함께 정인재(55회) 편집국장님을 모셔오기로 하고 오전

업체와 약속이었던 필자는 약속 후 혼자 출발하여 잘지어진 명지건설 사옥 5층 사장실을 찾았다.

입구에 ISO 국제인증마크가 붙어있어 회사의 시공능력과 기술력을 짐작할 수 있었다.

친절한 아가씨의 안내로 사장실 문을 여니 넓은 사무실에서 우리 일행을 기다리던 서희동 동문이 반갑게 필자를 맞이한다. 참고로 서희동 사장은 필자와도 친분이 있는 사이라 오늘 탐방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도착하리라던 정 국장님 일행의 곧 도착한다는 전화를 받고 때가 점심 시간인지라 서사장은 우선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함께 식사부터하고 얘기를 나누자고 한다.

잠시 후 우리는 서 사장이 추천하는 평소 자주 찾는다는 고기집으로 향했고 숯불에 잘 구어진 고기를 맛있게 먹으며 소주와 맥주잔을 기울이며 오늘의 반가운 만남을 자축하였다.

식사를 마친 후 서 동문의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서희동 사장에 관한 많은 얘기를 본인을 통해 또 질문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먼저 서희동 사장은 순수 자수성가형 기업인이며 지금의 명지건설(주)의 대표이사가 되기까지 몇몇 이름이 잘 알려진 건설회사에서 경력을 쌓아왔다는 이야기도 들려준다. 오상달 동문과의 인연도 아마 그 시절 맺어진 듯하다.

영남건설 및 대백건설에서 13년동안 직장생활을 마친 후 1999년 2월 포스틸건설이란 회사를 창립하였고, 2003년 4월 명지건설(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작년도 매출 227억 규모에 토목, 건축 전문인력을 다수 보유한 이 회사는 창의, 성실이란 사훈을 걸고 기술정진에 의한 품질향상, 원가절감에 의한 경쟁력확보라는 경영방침을 정하고 주로 공장건물 건설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주요공사 실적으로는 현풍고등학교 체육관, 안심로 확장공사, 대구정밀 신축공장공사, 안흥



▲ 집무실에서 서희동(68회) 명지건설 사장

고등학교 신축공사 등 많은 공 사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서 2차단지에 CM테크 공장을 수주하여 준공을 마친바 있다.

비교적 곱상한 외모와 젊은 나이 탓에 정인재 국장님께서 혹시 2세 경영주가 아닌가 하는 처음의 질문이 얘기 도중 서희동 사장의 경력과 공사수주 능력을 알고나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가족관계는 슬하에 서형주(중3), 서수희(중1), 서용주(초) 등 2남 1녀를 두고있는 모범가장이며 독실한 불교신자이기도 하다.

평소 회사일에 바쁜 관계로 주말에는 가급적이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한다는 생각으로 총동창회 산행에 함께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과 더불어 특히 68회 기수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정인재 국장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 동안은 사업이 바빠 돌보지 못했던 본인의 건강과

기수의 참여를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가지런히 정돈된 사무실의 비품들과 벽에 걸려있는 대형 그림이 사무실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든다. 평소 필자가 알고 있던 서 사장은 언제나 조용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후배였다. 깨끗한 외모와 수수한 얼굴속에서도 번뜩이는 기지와 재간둥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묻는 우리에게 지역건설 경기의 불황을 걱정하면서 주로 공장 신축공사와 관급공사에 치중하여 수주를 늘려갈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평일이었고 또 각자가 나름의 일정이 있었기에 좀더 머물다 가라고 아쉬워하는 서 사장의 권유에도 우리 일행은 일어설 수 밖에 없었고 차후 산행시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눌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글 · 김진걸(65회 · 편집위원)



▲ 명지건설(주) 사옥

웃으면 건강해요

>>> 콘돔과 브래지어

▲ 공통점

1. 불황이 없고 제조회사가 망하지 않는다.

2. 사랑하는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에겐 착용모습이 공개되지 않는다.

3.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구입할 때는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4. 신체 중에 가장 신축성이 뛰어나고 보드라운 부분을 포옹하듯이 감싸는 데 쓰인다.

5. 자신의 크기에 알맞은 사이즈를 선택 해야지 이를 무시했다간 불편해 진다.

▲ 다른점

1. 콘돔은 사용 직후 버리지만 브래지어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2. 콘돔은 대부분 투명하지만 브래지어는 불투명하다.

3. 콘돔은 하체에 브래지어는 상체에 사용한다.

4. 찢어지거나 구멍이 났을 경우 콘돔은 버리지만 브래지어는 불편해도 얼마간 쓸 수 있다.

5. 콘돔은 사랑할 때 사용되지만 브래지어는 찬밥 신세가 된다.

명지건설주식회사

MYONG JI CONSTRUCTION CO., LTD.

토건 제03-0039호 · ISO14001 · ISO9001

www.myong-ji.co.kr

代表理事

徐 熙 東 (68회)

(701-804)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084-664

TEL : (053)981-9005(代) FAX : (053)981-1984

H.P : 011-507-2778

산 행 기

왕새우에 하산주, 거기다 비까지... 운치 있는 산행 뒷풀이

그냥 달력만 쳐다 보면 먹을 게 생긴다. 무슨 데이 무슨 데이 3월3일 삼삼 데이 삼겹살 먹는 날이라고 고기 집에서 시작한 술이? 새벽을 넘겨 고주망태가 되어 마누라 대리 불러 귀가했다.

다음날 산행이 있는 줄도 모르고 부어라 마셔라 했으니 무슨 대책이 있으랴!

새벽에 갈증이나 눈을 뜨니 시계가 5시30분을 지나고 있다.

이번 산행엔 꼭 참석한다고 동식에게 약속은 해놓고? 술 타령에 배낭도 꾸러 놓칠? 않았으니 이 일을 어찌누!!!!

한 번도 아니고 매번 약속만 해놓고는 펍크 내는 바람에 동식이 얼굴 보기가 민망해 마누라 깨워 도시락 챙기고? 부랴부랴 모교로 향했다.

무척 오랜만에 참석하는 총동창회 산행이라 설레임도 있고 기대도 있고...

모교에 도착하니 낮 익은 선배님 모습도 더러 보인다.

가벼운 수인사 후 버스에 몸을 신자마자? 눈을 부치니? 속이 부대끼다. 괜히 따라 나선 게(?) 아닌 가 하고 후회 할즈에 목적지 달음산 입구에 도착했다.

차안에서의 갑갑함이 산 입구에 들어서니 한결 기분이 상쾌하다.

버스에서 내려 등반대장님 주의사항 듣고 간단한 몸 풀기 운동 후 다 같이 부르는 계성학교가제창은 타지에서 느끼는 일체감에 팬스레 가슴이 찡해 움을 느낀다.

등반대장님의 출발신호와 동시에 정상을 향해 모두들 걸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웬지 오늘은 영 자신이 없다.

일기예보는 비가 온다했는데 산행을 해야 하나 어쩌나? 갈등하다 일행들 뒤를 따라 힘든 걸음을 옮긴다.

늘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발걸음이 가볍지만 어쩌다 한번 기분 내키면 나서는 나로선 지난밤의 숙취까지 곁들여 한걸음 움직임이 곤혹스럽다.

해발 600M도 채 되지 않는 나지막 산이기에 정상에 오르기로 했다.

시작한지 10분도 지나질 않아 걸음은 처지고 땀은 억수같이 쏟아진다.

가쁜 숨 몰아쉬며 배낭을 내려놓고 물 한 모금 마시고선 위를 쳐다보니 운무에 가려 달음산 정상에 보이질 않는다.

맑은 날 낙엽이진 겨울산은 시야가 넓어 산 아래 경치를 구경하기 더없이 좋는데 오늘은 앞만 보고 걸어야 할 모양이다.

몸이 버거우니 집식구가 챙겨준 배낭도 부담스럽다. 한 굵이 돌때마니 배낭을 내려 쉬어 오르길 몇 차례 전날의 과음을 반성하며 오르다 보니 달음산 정상에



▲ 하산길에서 포즈를 취한 필자.

도착하였건만 짙은 안개 속에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다.

맑은 날이면 기장군 앞바다의 절경에 흠뻑 젖어 시한 수 나올 법한데 오늘은 그런 광경은 포기하고 허기진 배를 해결하기 위해 자리를 잡았다.

산불조심이 헛구호처럼 보이지만 몰래 끓여먹는 라면이 최고의 요리 아니겠는가? 라면국물

에 쇠주 한잔 그림이지만 전 날 먹은 술 탓에 오늘은 영 아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서둘러 하산하니 모두들 웅기종기모여 앉아 대화파티를 하고 있다.

대하에 하산주, 거기다 비까지 나름 데로 운치 있는 산행 뒷 풀이다.

적당히 즐거운 가운데 시간이 되어 다시 버스에 올라 대구로

향하니 버스 안에서 선후배간에 주거나 받거나 정을 나누는 모습이 이 또한 동창회 산행의 묘미인가보다.

“나이 들어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운동이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했던가!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낸 것에 만족하며...

글 · 이승열(67회)

집행부 소식

❖ 산우회 편집위원들은 편집회의(3월8일) 및 교정(3월 21일)작업을 실시하였다.

❖ 4월 정기산행 사전답사를 실시하였다(3월16일,사랑하도)

❖ 3월 18일 65회 산우회 초청으로 정하룡 홍보부장과 정인재 편집국장이 거제도 망산으로 산행을 같이 했다.

평소 총동창산우회에 참여가 저조해서 향후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차 참석하여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기별 동정

◆ 재경총동창산우회

3월 18일 강화도 고려산 정상에서 83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시산제를 지냈다.

◆ 제50회

3월 19일 팔공산 서봉을 5명의 회원이 산행을 했다.

◆ 제52회

3월 25일 가야산 마수리로 산행예정이다.
3월 31일 12시 아리아나호텔에서 차

경열 산우회장의 장남 결혼식이 있을 예정이다.

◆ 제55회

3월 11일 단양 제비봉으로 38명(부부동반)의 회원이 산행을 했다.

4월 8일 마산 천주산으로 산행예정인데 정기총회를 겸한다고 한다.

◆ 제62회

3월 18일 17명의 회원이 갯바위로 산행을 했다.

◆ 제63회

3월 25일 앞산 용주골로 산행예정이다.

◆ 제65회

3월 18일 거제도 망산에서 30명(부부동반)의 회원이 산행을 했다. 해물탕과 새우구이의 푸짐한 안주로 하산주를 즐겼다고.

◆ 제67회

3월 11일 청도 역산에서 22명(부부동반)의 회원이 산행을 했다.

◆ 제70회

3월 18일 북지장사에서 갯바위로 15명의 회원이 산행을 했다.

3월 24일 동기회 단합대회가 치악산에서 있을 예정이다.

등산장비 전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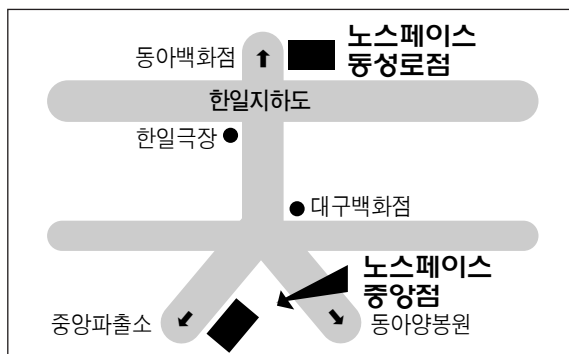
노스페이스 중앙점

대표 조 홍 채 (64회)

H.P. 017-504-2277

- 중 앙 점 : 대구시 중구 동성로 2가 150-16 (대백⇄중앙파출소) / Tel. (053)255-5511
- 동성로점 : 대구시 중구 동성로 2가 36번지 (한일극장 건너편) / Tel. (053)421-4433 Fax.424-7361
- 구 미 점 : 구미시 원평2동 1008-33 (구미 국민은행 건너편) / Tel. (054)456-6900~1

계성산우회원 특별대우!!



3월 정기산행, 기장군 달음산에서 열려

3월 4일 총동창산우회 제86차 정기산행을 부산 기장군 달음산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산행은 며칠전부터 많은 비가 내릴거라는 일기예보에 참석율이 저조할까 걱정하였으나 두 대의 버스가 짝 찰 만큼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다. 잔뜩 찌푸린 날씨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동문들간의 인사는 흥겹기만 한 가운데 버스는 오전 11시경 달음산 옥정사 입구에 도착하였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스트레칭과 교가제창으로 사전 행사를 마치고 각 기수별 삼삼오오 산행에 나섰는데 비가 많이 올거라는 걱정과는 달리 간간이 몇 방울 정도의 부슬비만 내려 다행이었다.

산행 초입부터 정상까지는 계속 가파른 경사길로 이루어져 있지만 거리가 비교적 짧아 그리 어려운 코스는 아니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달음산이라고 하면 사방으로 확 트인 시원한 조망과 동해 바다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는 즐거움이 있는 산인데 비와 안개로 인해 조망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상 부근의 깎아지른 듯한 기암괴석과 절벽은 아찔한 구경거리를 제공하였다.

정상에 이르러 삼삼오오 늦은 점심을 즐기고 바로 하산하기 시작했는데, 부슬비에 진흙으로 변해버린 하산길이 그나마 조금의 고통(?)이 되었다.

오늘 산행은 약 3시간 30분 정도 예상하였는데 대부분이 그 시간 이전에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도착하고 나니 그때부

터 제법 많은 비가 내리는 터라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하였다.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였는데 비를 피할 수 있는 고속도로고가 아래에서 전 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미리 준비해둔 새우구이와 동동주 등으로 여흥을 즐겼다.

오후 5시 조금 못미쳐 귀가길에 오른 버스는 오후 6시 40분에 모교에 도착하였는데 아마 첫 산행 이래로 가장 빨리 도착한 산행이었을 걸로 생각된다.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44회:채근수 ▷48회:류청웅 ▷51회:허노원, 김완식, 이동희, 김명숙, 권영호 부부 ▷52회:김시우, 정하룡, 차경열, 김신웅, 박순우, 신개식, 김재태, 문진철, 이종덕, 박영기, 최상철 부부, 서정환 부부, 김기선 부부 ▷55회:이종열, 서상택, 정인재 56회:이준기, 황기철 ▷60회:김영중, 박동균, 이정우, 주이광, 최명호, 이인직, 박영태 부부, 백기홍 부부, 안규상 부부, 진동현 부부, 김인중 부부 ▷61회:이승엽 부부, 석재호, 임유상, 김성수, 남인길, 신문탁 ▷62회:권호춘, 김장수, 방인철, 이종석 ▷63회:이세탁, 안승철, 김재룡, 이상준, 고수환, 이 탁, 이일우 부부, 장종국 부부 ▷67회:이승열, 박종후, 장동식, 김성연, 송준석 ▷69회:김도균, 이강호 ▷70회:조현영, 김왕진, 박준석, 박상훈, 김현호, 장대욱, 김중곤, 신대수 ▷71회:석준수, 장동현, 추쌍엽, 송건호, 박범준, 김병철, 윤태호, 박용상, 노규영 ▷75회:오창현, 우희경 (이상 91명)



▲ 달음산 정상 및 철계단에서(71회 회원들)

산우회 탐방

계성 67회 산우회

67회 산우회는 올해로 창립3주년을 맞이한다.

그동안 정식 산우회 결성없이 등산을 좋아하는 동기들끼리 정기적으로 산행을 하다가 2004년 6월 6일 청룡산을 산행한 후 도원식당에서 김원호, 공정섭, 김하식, 이승열, 이창엽, 장동식, 김경중, 김영진, 김수연, 박득현, 김경찬 이상 11명이 모여서 계성 67산우회를 결성하여 매월 첫째주 일요일에 정기산행을 하기로 하고 초대회장에 김원호 동기를 만장일치로 추대하고 총무에는 이창엽 동기가 맡아서 67회 산우회의 초석을 다지는데 물심양면으로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 하계 지리산 종주산행을 하였다.

그리고 2006년 9월에는 특별산행으로 박종후, 이창엽, 장동식 회원이 네팔 국립공원 1호인 랑탕1봉과 2봉(해발 약4300미터) 히말라야 트레킹을 8박 9일간 다녀왔다.

올해 2007년 3대 회장에는 김성연 동기, 총무는 박득현 동기가 맡게 되었다.

현, 김성연 회장은 역대 어느 회장 못지않게 의욕적으로 67산우회를 이끌어 가고 있고 산행은 팔공산 시산제를 비롯하여 거망산, 억산을 다녀왔다.

그리고 많은 동기들이 함께 산행할



▲ 제34차 정기산행 청도 억산에서.

수고하였고, 산행지는 팔공산과 앞산을 위주로 하였고, 2004년 11월 지리산 노고단 정기산행에는 회원가족을 포함하여 46명이 산행을 하였다.

그해 12월 첫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산행일이 총동창회 산행일과 겹치므로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 정기산행을 하기로 변경하고 입회비 및 년회비 규정 등 67산우회 회칙도 제정하였다.

2005년 산행은 합천 황매산, 거창 의상봉, 지리산 반야봉, 구미 금오산, 청송 주왕산 등 점차 산행지를 넓혀 나아갔다. 특히, 산행후 뒷풀이는 그지역 특산물이나 먹거리로 간단하게 하였고, 대여섯명의 회원은 꼭 동부인하여 산행에 참가함으로써 산행인원이 15명~25명 정도가 되었다.

2006년 2대 회장에 공정섭 동기, 총무에 송권익 동기가 맡아서 67산우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산행지는 2006년 1월 1일 대덕산 신년 일출맞이 산행을 비롯하여 김천 수도산(시산제 산행), 김천 황악산, 포항 내연산, 영동 민주지산, 울산 신불산 등을 산행하였고, 8월에는 정성복, 이창엽, 김수연, 이승렬, 장동식 회원이 2박 3일간 지리산

수 있도록 산행일을 매월 둘째 일요일로 변경하였고, 연간 산행계획도 세워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67산우회도 올해부터는 송준석 동기가 부대장을 맡고 있는 총동창회 산우회 산행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기로 하고 시산제 산행부터 매월 참석하고 있다.

계성67회 산우회 정회원은 다음과 같다.

▷김성연, 김원호, 김하식, 김수연, 김경중, 김경찬, 김봉석, 김종남, 공정섭, 류성훈, 박득현, 박종후, 손익수, 송권익, 송준석, 신용대, 이승열, 이일수, 이재면, 이창엽, 임재식, 임준석, 장동식, 정성복 (이상 24명)

글 · 박득현(67회 · 산우회 총무)



산우회 회장
김 성 연



산우회 총무
박 득 현

알림 >>> 2007년 총동창산우회 기별 등반대회는 5월 13일(일) 개최할 예정이며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발 축 전

계성 총동창산우회 제5대 회장단 출범을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계성 67회 산우회원 일동

회장 김 성 연 / 총무 박 득 현